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<사전 벤치마킹 문서>** | | |
| **작성자 : 박세훈** | **작성일자 : 2015-07-11** | **페이지 (00)** |
| **카테고리 : 청각 장애인** | | |
| **벤치마킹 프로그램 명 : 스피치 미러** | | |
| **벤치마킹 프로그램 예상 타겟 : 청각,언어 장애인** | | |
| **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서비스** | | |
| **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컴퓨터로 청각쟁이인의 발음을 컴퓨터가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맞는 발음을 위해서 입모양과 숨을 내쉬는 방법과 혀의 모양등을 컴퓨터화면에 입모양등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교정을 지도해 준다. 하지만 프로그램이 아직 100% 완벽하지 않아서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같이 교육에 참여하여 발음이 맞다 틀리다를 알려줘야한다.** | | |
| **프로그램의 특화 서비스** | | |
| **애니메이션 정보 – 조음기관(입술,턱,혀,연구개,비강통로)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어준다.**  **한국어 언어 체계에 따른 훈련 언어 분류 – 언어교육 언어치료용 훈련 자료를 음소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훈련 목표에 맞게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.**  **다양한 조음오류 유형별 훈련 어휘 분류 – 조음 평과 결과에 따른 오류로 언어교육 언어치료용 훈련 어휘를 구성.** | | |
| **우리 프로그램에 반영할 만한 서비스** | | |
| **이 프로그램에서 반영할 만한 서비스 보다는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분석하여 그 음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게 좋은 것 같다.** | | |
| **이 프로그램의 장점** | **이 프로그램의 단점** | |
| **훈련의 목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교육이 잘되고나면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할 수 있을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렇게되면 청각장애인이 말하고 듣는사람이 글씨로 써서 보여주는 방식의 대화가 가능해 질 수 있다.** | **교육이 잘되어 청각장애인이 말을할 수 있다고 해도 듣는건 여전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신경써줘야 한다는 점이 있다.** | |
| **벤치마킹 결과.** | | |
| **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결과 교육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다.** | | |